


중앙대, 제23회 인공지능인문학 국내학술대회 오는 24일 개최

☎ 복현명 | Ⓞ 승인 2022.06.20 16:49



제23회 인공지능인문학 국내학술대회


인공지능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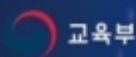

일시 2022년 6월 24일(금) 13:00-18:00
장소 비대면 (Zoom) 개최

사회 박소영(중앙대), 김바로(한국학중앙연구원), 박평종(중앙대)
개회사 이찬규(인문콘텐츠연구소 HK+사업단장)

발표 | 토론
놀이기반 인공지능 스토리텔링 교육 연구 - 김재웅(중앙대) | 이기성(중앙대)
메타버스시대 발생가능한 사회적 이슈 및 이용자 행동강령 - 이현정(중앙대) | 강지영(단국대)
연결하고 공명하는 기계들-신체들 - 김민선(가천대) | 유인혁(서울시립대)
포스트휴먼 시대의 비주체와 정동 - 공현진(남서울대) | 황선희(중앙대)
인공지능 시대의 신인류 디지털 휴먼 - 박진호(고려대) | 김태균(코타스 대표이사)

종합토론

주최  중앙대학교 인문콘텐츠연구소
HK+인공지능인문학사업단

후원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중앙대학교가 오는 24일 '인공지능 사회'를 주제로 제23회 인공지능인문학 국내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사진=중앙대.

[스마트경제=복현명 기자] 중앙대학교가 오는 24일 '인공지능 사회'를 주제로 제23회 인공지능인문학 국내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제23회 인공지능인문학 국내학술대회는 국내 유일의 인공지능인문학 연구기관인 중앙대 HK+인문콘텐츠연구소가 주최하고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후원하는 행사다.

'인공지능 사회'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사회 전반에 가져온 변화와 앞으로 발생할 변화들이 조명될 예정이다. 인공지능 기술이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한 논의도 진행한다.

학술대회는 이찬규 HK+인문콘텐츠연구소장의 개회사로 시작된다. 1부는 놀이 기반 인공지능 스토리텔링 교육연구, 메타버스 시대 발생 가능한 사회적 이슈와 이용자 행동강령을 다룬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연결하고 공명하는 기계들-신체들, 포스트 휴먼 시대 시의 비주체와 정동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인공지능 시대의 신인류 디지털 휴먼을 주제로 진행되는 3부 이후에는 종합 토론을 통해 더욱 심도 깊은 논의들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학술대회를 주최한 중앙대 인문콘텐츠연구소는 포스트 휴먼 시대 인문학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인문학을 어젠다로 HK+(인문한국플러스)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인문·사회과학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이해하고 활동하고자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모였다. 학술대회, VR 활용 교육, 교육 콘텐츠 개발, 지역 인문학 교육 사업 등 폭넓은 연구·사업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찬규 중앙대 HK+인문콘텐츠연구소장은 "인공지능 기술의 역할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사회, 문화, 역사, 교육 등 인간사회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이 가져온 변화를 살피고 인공지능의 미래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저작권자 © 스마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복현명